

buddhanews.com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놓고 능글맞고 당당하게 사세요

25면에서 계속

좀더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스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마음이 부정적인 편이어서 늘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안 맞는 상대에 대해서는 흥도 많이 보고 원망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남에게도 좀더 배려해서, 그리고 좀더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어느 가난한 집에서 보리쌀 따를 때 밭에 한 그릇 공양을 받고는 너무 고마워서 나무를 한 집 해다 주러다가 은사 스님께 지게 작대기로 호되게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은사 스님이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자 있는데 그것도 보시라고 하느냐며 불호령을 하겠다 말합니다. 스님이 그 소릴 듣고 '아이구! 알았다.' 하고서 나무를 동맹이치고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은사 스님께 삼 배를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뭐가 감사하나 하나만 그냥 가만히 합장을 하고 싱긋이 웃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께서 '아하! 그러면 부처님의 공수를 얻어서 너는 오늘 그 집의 물 한 그릇의 그 이치를 알았구나.' 하고선 비껴나셨대요. 그 후에 그 집은 그 해에 마름을 받고 자연히 보리쌀 따를 안 먹게 되고 쌀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일판에서 들쭉거리던 삶게 먹고살기가 넉넉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부처님 공양을 잘하고 그 집의 자손들이 불가에 인연을 맺고 그래서 크게 부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대로 맡아서 건질 수 있고 길을 가다 오다가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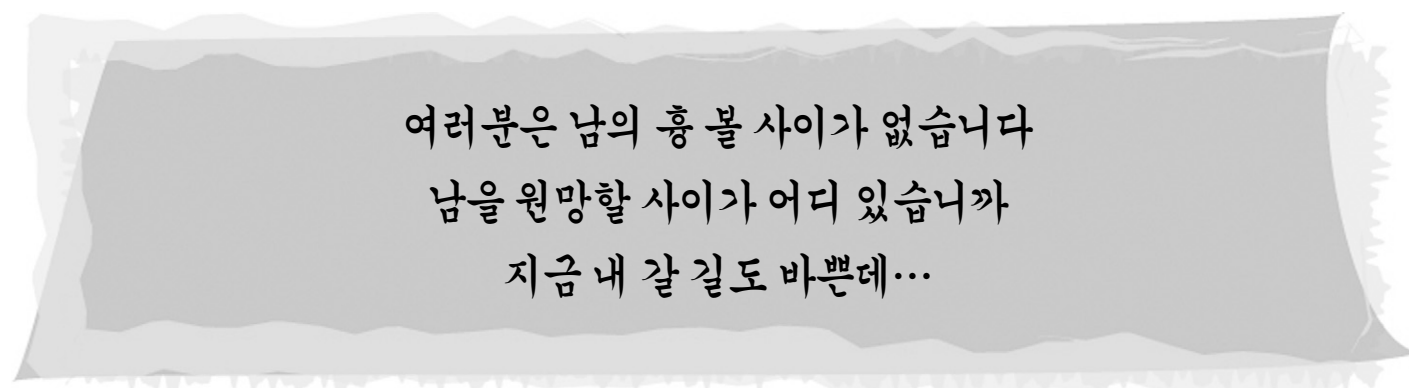
그렇듯이 여러분은 남의 흥 불 사이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길 가기도 바쁘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을이 돌아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봄이 오도록 하셔야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옹하고 하는 스님이 제법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적 도둑이 많았죠. 그런 산도둑들이 때로 몰래 얘기를 했습니다. "저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니 내가 한번 만나 보리라." 그래서 칼을 들고서 그 스님이 오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시다. 그러면서 스님이 오시니깐 자기 속의 말로 하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옹하다는 스님이 내가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오는구나.' 하고 아주 호탕한 웃음을 웃었죠. 그런데 그 스님이 오시니까, 그 도둑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 봤던들, 당신 가슴에 철편을 갖 것도 아닌데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칼은 사정없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수 있고, 당신의

가슴을 찌러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나 하고 한번 갈라 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껌껌 웃으면서 하는 말이예요. "추운 겨울에 고목들 자른들 꽃이 나오겠나? 스스로 봄이 오면 스스로 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스스로 열매가 열릴 것을... 그러니 그 뜻을 알게." 그러니까 그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마적으로 살면서 그래도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그 소릴 듣고 칼을 툄 떨어뜨리고 거기서 그냥 삼 배를 올리고, 자기와 함께 부하 도둑들도 다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이 마음 도리 속에서는 봄은 항상 봄이지 사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이 와서 물이 흐르고 그 물맛이 좋고 열매가 열려서 수많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무르익히신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만 가지 열매의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집가집을 가지고 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다.

주인공과 관계가 있는 건지요?

현대과학에서도 한 물체를 쪼개 본다면 분자, 원자에서 소립자, 미립자까지 증명이 되고 결국 그 근본은 어떤 것도 고정됨이 없는 공이라고 합니다. 결국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과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도 그런 맥락인지요?

예, 당연한 말이지요. 지금 물리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증명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살림하는 데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몸은 근본적으로 지·수·화·풍으로 일체가 다 뭉쳐져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런 소립자, 미립자까지 있을 리가 없죠.

나는 현대 용어는 잘 모르지만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바로 핵이 되고, 핵을 보호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데

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안의 눈이라는 것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수천 수만 광년 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 곁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풀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돼서 둘이 아니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서 보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의 그 명경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본다면 앞서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천체를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적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불가에선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것은 다 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위심, 즉 말하자면 무심과 유심이 같이 혼합이 돼서 행을 할 수 있는 그 붓을 본다면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이름 없는 진자 천문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름만 천문학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천 가지의 그 뜻이 다, 내가 보는 눈이 그대로 문이 돼서 벽도 없고 결집 없이 내가 볼 수 있다면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허려 남의 흥내만 되지만, 이 마음의 도리를 길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흥내나 낸다면 자기 몸이 해쳐지고 자기가 흥내 내는 그 말이 자기한테 그냥 관념이 돼서 자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가 창창한 젊은이니까 그러한 것을 다 담고 있는 내 주인공의 도리를 진짜로 믿고 실천하신다면 내게도 남에게도 다 좋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연은 없다고 하는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면 나쁜일이건 모두 우연은 없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모든 게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건지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내가 수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어떠한 일,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짓고 산 그 차원대로가, 즉 말하자면 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 수십

년 돌아갑니다. 그것을 '고(苦)' 덩어리라고 이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짊어지고 나온 그곳에서 지금 나오는 그곳에다가 되돌아갑니다.

카세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카세트에 녹음되어 있던 말이 내가 지금 또 집어넣으면 앞에 넣었던 말은 없어지는 것이나 같습니다. 연방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고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인과로 인해서 업을 가졌어도, 지옥고를 당해도, 악업을 지었어도 다 녹아들고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이열치열이란 말도 뜻이 그렇게 나온 자리였다 되놓는다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업이 있다, 나는 죄가 많다, 하는 수많은 이념들의 업, 팔자 운명 이런 말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다시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좋게 되는 일이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그렇게 하라는 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업이란게 이런 거는 모든 게 과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물질로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는 모든 걸 녹이면 됩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끄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기간에도 이익이고, 모든 게 아들이야 딸이야 부부다 부모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 나 나의 자기발전소에서 불 하나를 켜면, 자기발전소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필연이라 해도 내 한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참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옮겨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곁탁 떨어 버리세요. 마음은 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 집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들을 튼튼하게 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실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대불교현불상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쯤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입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품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관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향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 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 가 격 : 대형 ₩ 238,000 ⇒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소형 ₩ 198,000 ⇒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골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상 |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